

엑소, 가요 시상식 역사 새로 썼다

남자 아이돌그룹 '엑소'가 가요 시상식 '골든 디스크'의 역사를 새로 썼다. 엑소는 지난 14일 오후 경기 일산 킨텍스에서 열린 '제 31회 골든디스크 시상식' 음반 부문에서 대상을 비롯해 본상, 세션 아시아아이콘상 등 총 3관왕을 차지했다. 이에 따라 이 시상식 사상 처음으로 4년 연속 대상을 차지했다. 엑소는 "골든디스크상은 정말 무거운 것 같다"며 "무게 만큼 열심히 더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지난해 대세그룹으로 자리매김한 방탄소년단이 이 본상을 받았다. 빌보드 앨범 차트 '빌보드 200'에서 한국 가수 최고 순위인 26위를 기록한 만큼 '글로벌 K팝 아티스트상'도 받았다. 엑소와 방탄소년단은 오프라인 음반 시장이 부진한 상황에서도 지난해 발매한 앨범들로 각자 총합 판매량 100만장을 넘기며 인기를 과시했다. 가온차트의 '2016년 K팝 결산'에 따르면 작년에 발매된 오프라인 앨범 중에서 엑소가 정규 3집 '이그잭트'를 114만장 넘게 팔아치우며 최다 판매량을 기록했다. 여기에 겨울 스페셜 앨범과 유닛(EXO-CBX), 솔로(레이)까지 합산하면 무려 213만장을 넘겼다. 방탄소년단은 정규 2집 '윙스'를 비롯해 앨범 합산 111만 장을 넘겼다.

▶제31회 골든디스크 시상식
**사상 최초 4년 연속 대상
 본상 등 3관왕도 차지
 지난해 발매한 정규 3집
 114만장 넘게 팔아치워**
**방탄소년단도 본상 수상
 지난해 발매 앨범 합산
 111만장 넘겨 인기 과시**



엑소

엑소와 방탄소년단 외에 샤이니, 샤이니 멤버 태민, 갓세븐, 세븐틴, 몬스타엑스, 빅스, 인피니트 등 남성 아이돌 그룹이 본상을 받았다. 샤니는 인기상까지 거머쥐었다.

제작자상은 방탄소년단을 프로듀서 방시혁, 세션아시아아이콘상은 엑소와 함께 '레드벨벳'이 받았다. 신인상은 SM의 신인그룹 NCT127과 음악채널 엠넷의 걸그룹 걸스 프로젝트를 통해 구성된 프로젝트

그룹 '아이오아이'가 받았다. 골든디스크 시상식은 음반과 음원 부문으로 나뉘어 시상한다. 전날 음원 부문 대상은 그룹 '트와이스'가 차지했다. /뉴스



전북현대, 두바이에서 전지훈련

전북현대모터스축구단(단장 이철근)이 시즌 대비를 위한 해외 전지훈련을 아랍 에미리트(UAE) 두바이로 떠난다. 전북은 지난 13일 오후 12시 35분 비행기로 인천공항을 통해 아랍 에미리트(UAE) 두바이로 전지훈련을 떠났다. 전북은 최상의 기후 조건과 훈련장이 있는 UAE를 3년 연속 선택했다. UAE를 전지훈련지로 선택한 이유는 한 가지 더 있다. 전북은 지난 2015년과 2016년 두 차례 UAE 두바이와 아부다비에서 전지훈련을 실시하며 K리그 우승(2015)과 아시아축구연맹(AFC) 챔피언스리그 우승(2016)을 일구어 냈다. 더욱이 지난 해 AFC 챔피언스리그 우승 트로피를 들어 올렸던 곳도 UAE 아부다비기에 전북에게는 '악속의 땅'이 되었다. 이번 전지훈련은 3주간의 일정으로 진행되며 새롭게 영입된 김진수와 이응을 비롯해 26명의 선수들이 참여한다. 체력 훈련과 전술 훈련을 통해 신규 조합을 이룰 것으로 보인다. 훈련 외에 약 4~5경기의 연습경기를 통해서 실전 감각도 끌어 올릴 예정이다. 선수단은 해외전지 훈련을 성공적으로 마치고 올 시즌 목표인 K리그 우승과 ACL 2연패를 이루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김민근 기자

군산시, 국제·전국스포츠대회 개최 준비 본격화

군산시가 체육도시 위상에 걸맞은 국제 및 전국대회 개최를 위해 본격적인 준비에 나섰다. 먼저 내달 11일 군산월명종합경기장과 보조경기장에서 초등 및 고등학교 130여개 팀이 참가하는 음식배 전국 축구대회가 열린다. 올해 26회째를 맞이하는 음식배 전국 축구대회는 22일까지 12일간 조별리그 예선전과 본선 토너먼트를 통해 결승을 다투게 된다. 또한 4월 9일에는 월명종합경기장에서 출발해 군산시 일원을 달리는 군산새만금국제마라톤대회가 개최되며, 4개 종목인 5km, 10km, Half, Full코스로 진행된다. 새만금국제마라톤대회는 해를 거듭할수록 좋은 기록이 나오고 있으며, 지난해에는 국내부 우승자가 국가대표로 선발되는 영예를 얻은 바 있어 올해 대회에는 어떤 기록이 나올지 더욱 기대가 된다. 특히 올해는 국비 3억원을 확보하여 여자부와 Half코스까지 신설해 내실 있는 대회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군산=문정근 기자

프로배구 대한항공 새 구단주에 조원태 사장

프로배구 대한항공 점보스는 조원태 신임 사장을 새 구단주로 선임했다고 지난 13일 밝혔다. 조원태 사장은 여객사업본부장, 경영전략본부장, 화물사업본부장, 총괄부사장을 거쳐, 지난 11일부터 대한항공 7대 사장으로서 취임했다. 대한항공 배구단은 조원태 취임과 함께, 적극적인 투자로 국내 배구 활성화에 힘을 보탬 계획이다. /김민근 기자



한국 봅슬레이, 북아메리카컵

4인승에서 동메달 수확

한국 봅슬레이 대표팀이 국제봅슬레이스켈레톤경기연맹(IBSF) 북아메리카컵 4인승에서 동메달을 수확했다. 석영진(27)·김근보(31)·이경민(24)·이상 강원도(정)·장기건(29)·강원연(정)은 13일(한국시간) 미국 유타주 파크시티에서 열린 2016~2017 IBSF 북아메리카컵 6차 대회 남자 4인승에서 49초62를 기록해 3위에 올랐다. 이번 대회에서 미국이 48초97로 금메달을 따고, 에드슨 빈달라티가 조종대를 잡은 브라질이 49초22를 기록해 은메달을 거머쥐었다. 한국은 앞서 벌어진 5차 대회에서는 49초53을 기록해 4위를 차지했다. 5차 대회에서는 브라질이 49초09로 금메달을 수확했고, 미국이 은·동메달을 모두 가져갔다. 북아메리카컵은 세계 최정상급 선수들이 출전하는 월드컵 대회보다 급이 한 단계 낮은 대회다. /김민근 기자

테니스 정현, 세계랭킹 78위 올리보와 맞대결

호주오픈 본선 대진표 확정

한국 남자 테니스의 '희망' 정현(21·한국체대·세계랭킹 104위)이 시즌 첫 메이저대회인 호주오픈 1회전에서 세계랭킹 78위 렌조 올리보(25·아르헨티나)와 맞붙는다. 지난 13일 발표된 호주오픈 테니스대회 남녀 단식 대진표에 따르면 정현은 1회전에서 올리보를 상대하고, 승리를 거둘 경우 그리고르 디미트로프(26·불가리아·세계랭킹 15위)·크리스토퍼 오코넬(23·호주·세계랭킹 238위)의 1회전 승자와 만난다. 정현보다 4살 많은 올리보는 2009년 프로로 전향했으며 키는 180cm로, 185cm인 정현보다 5cm 작다. 메이저대회 본선에 진출한 것은 지난해 호주오픈이 전부다. 당시 예선을 거쳐 본선 무대를 밟은 올리보는 2회전에 올랐다. 정현과는 이번이 첫 맞대결이다. 지난해 호주오픈 1회전에서 최강자 노박 조코비치(30·세르비아·세계랭킹 2



위)와 맞붙어 탈락한 정현은 이번에는 한층 나은 대진표를 받아들었다. 정현은 이전까지 2015년 뮌헨과 US 오픈, 지난해 호주오픈과 프랑스오픈 등 4차례 메이저대회 본선 무대를 밟았

며 최고 성적은 2015년 US오픈에서 2회전에 오른 것이다. 세계랭킹 1위로 이번 대회 톱시드를 받은 앤디 머레이(30·영국)는 1회전에서 일리아 마르첸코(30·우크라이나·세계랭킹 93위)와 만난다. 호주오픈 남자 단식 사상 최초로 7회 우승에 도전하는 조코비치의 1회전 상대는 페르난도 베르다스코(34·스페인·세계랭킹 40위)다. 머레이는 순항할 경우 8강과 4강에서 니시코리 게이(28·일본·세계랭킹 5위), 스타 바브링카(32·스위스·세계랭킹 4위)와 잇따라 만날 가능성이 크다. 조코비치의 8강과 4강 상대가 될 유력 후보로는 도미니크 팀(24·오스트리아·세계랭킹 8위), 밀로시 라오니치(27·캐나다·세계랭킹 3위)다. 여자 단식에서는 지난해 우승자이자 세계랭킹 1위인 안젤리크 케르버(29·독일)가 1회전에서 세계랭킹 61위 레시아 트수렌코(28·우크라이나)를 상대한다. 한편 호주오픈 본선은 16일 시작된다. /김민근 기자

구독 · 광고문의 288-9700

위대한 체·인·지의 시작

태권도원

누구나 경험할 수 있는
태권도 교육, 체험, 수련, 문화교류의 장
<http://www.tkdwon.kr>

태권도원 - 우리 세대에 우리가 만든 세계문화유산

올림픽 단일종목으로는 최초로 국제경기, 체험, 수련, 교육, 연구, 교류 등 태권도에 관련된 모든 것이 가능한 세계 유일의 태권도 전문공간입니다.

또한 전 세계인이 태권도를 통해 한국을 느끼고 한국의 일에 동참할 수 있는 우리 시대의 살아있는 세계문화유산입니다.

Taekwondowon 태권도원
 THE GREAT CHANGE
 전북 무주군 설천면 무설로 1482 / 063) 320-0114